

PDF EDITION

BIBLIA

이스라엘
따라걷기

holinesscode@me.com

저작권 없음 공지

본 PDF 문서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BIBLIA에서는 하나님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록한 글과 찍은 사진입니다. 사전에 BIBLIA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재배포 환영

본 PDF 문서는 BIBLIA 독자 및 www.biblia.co.il 회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배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나 SNS를 비롯한 사회통신망에서 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소박한 바램이 있다면, 다운로드 후 재배포 할때에 BIBLIA를 명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 대형교회 참조

본 BIBLIA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소식, 그리고 학술적인 소식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미자립 교회나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혹,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대형교회에서 이 자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알아서 BIBLIA에 후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후원에 대해서는 www.biblia.co.il 에서 About BIBLIA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리

| 이익상 holinesscode@me.com



Article at a Glance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 2:16)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하는 주요한 일중의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땅과 거래되는 상품, 그리고 사고 파는 음식과 유산으로 증여받는 유산, 모든 일체의 상업과 금융관련 일들과 상품에 세금을 매겼고, 심지어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 오갈 때 내는 통행세도 거두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 중앙과 지방 재정, 그리고 로마 군대들을 유지하고, 도로 건설과 유지 및 많은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찬란한 문명 뒤에는 그것을 떠받쳤던 사람들의 땀과 피가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에는 직접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세금 징수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퍼블리카누스(Publicanus)**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아(Judea)** 지방은 **시리아** 주에 속해 있었고, **시리아** 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1%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입, 수출세가 부과되었고,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곡물을 수확한 후 총량의 10%, 포도주나, 과일, 올리브 기름의 경우에는 총 생산량의 20%를 세금으로 더 내야했습니다. 상업에 종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물건 판매량에 따라 소득세를 달리 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내는 재산세를 포함하여 긴급 편성되는 각종 세금들이 허다했습니다. 이것들을 파악하고 거두어 들일 세금의 총액을 계산해 내는 사람이 **퍼블리카누스(세리장)**입니다.

물론, **퍼블리카누스**가 직접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은행에다가 세금을 내



데나리온. 예수님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사용되던 로마 기준 화폐 데나리온.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냈을 것이다.



렘돈. 흔히들 과부의 두 렘돈의 이야기로 알려진 렘돈 동전의 문양. 예수님 시대에 사용된 렘돈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저 동전 두 개가 과부가 냈던 헌금 “두 렘돈”이다.

거나, 인터넷 자동이체를 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거두어 들이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카누스**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권리를 다시 하도급을 주었지요.

하도급을 따내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 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서 **퍼블리카누스**에게 주겠노라 입찰을 거치게 되는데,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권이 돌아갈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의 **삭개오**의 경우에는 **퍼블리카누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 어디에 누가 사는지, 그 집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그 수입이 어떤지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리고**에서 징수할 예상 세금 총액을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세금 총액이 계산되면 **로마** 총독과 계약을 맺습니다.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거두어 들일지를 정하는 거지요. 그러나 **삭개오**가 직접 세금을 거두

러 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삭개오**가 거두어 들일 세금 총액을 제시하고 입찰을 공고하면,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삭개오**에게 자기는 **여리고**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를 거두어 들이겠노라고 자기들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세금 징수액을 써 냅니다. **삭개오**가 **로마**에 보낼 돈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그 보다 많은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싫겠지만, 초과해서 받은 만큼이 자기 주머니는 더 두툼해 질거니까요. 당연히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는 입찰자는 100원 보다 많은 돈을 써 내겠지요. 이렇게 입찰에 성공한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세리” (τελώναι) 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블리카누스**를 “세리장” (ἀρχιτελώνης) 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리들은 세리장을 위해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그곳에서 무언가를 더 남겨 자기들의 몫을 챙겨야했습니다.

그러니, 입찰가를 115원을 써냈다면 손 치더라도, 실제 징수하는 총액은 그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겠지요. 결국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만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세리들을 좋아할까요?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퍼블리카누스**였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리들은 하도급을 따낸 세금 징수 대행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